

0:3 → 4:3 '기적의 광주' 잔류 불씨

복이 '동점 福골' 성남에 대역전 강등 탈출까진 아직 험난한 길

광주 FC가 기적 같은 승리로 잔류를 위한 불씨를 살렸다. 4-3에서 주어진 5분이라는 길고 긴 추가시간, 종료 휘슬이 울리자 사력을 다해 마지막 5분을 지킨 광주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0-3에서 대역전극을 펼친 사나이들의 눈물은 광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 17일 '강등 절벽'에 선 광주 FC는 성남 일화와의 안방을 찾았다. 지난 39라운드 '강등 라이벌' 강원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에 그쳐 추격에 실패했던 만큼 성남전은 광주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광주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첫 골을 허용했다. 기습적인 한방을 날린 성남의 레이나는 전반 21분에 벨론의 패스를 받아 0-2를 만들었다. 빠른 공격으로 광주를 혼든 성남은 전반 29분 에벌튼을 앞세워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광주에게는 뽀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뒷심 부족으로 스피릿 시스템 도입이후 자력으로 1승도 거두지 못했던 만큼 패배가 눈앞에 있는 듯했다. 전반 38분 광주의 기적이 시작됐다. 박기동의 패스를 받은 안동혁이 오른발 슈팅으로 프로 데뷔골을 터뜨렸다. 전반 44분에는 남궁웅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박희성은 침착하게 골문을 가르며 2-3을 만들었다. 후반에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두 외국인 선수 복이와 주앙파울로가 골 행진에 동참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복이의 높이가 위력을 발휘했다. 201cm의 K리그 최장신 복이는 후반 1분 안동혁이 올려준 크로스를 헤딩 슈트로 연결하면서 3-3 동점을 만들었다. 5월5일 대구전 이후 6개월 만에 골을 터뜨린 복이는 동료와 '말춤'을 추며 기쁨을 나눴다.

■ K리그 강등권 순위 (11월 19일 현재)

팀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득실차
14 광주	40	40	9	13	18	-9
15 강원	40	40	11	7	22	-14
16 상주	40	27	7	6	27	-37

※ 상주와 15위 팀은 2013 시즌 2부리그로 강등
총44라운드 승점 같을면 득실차로 결정

3점 차의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광주는 후반 7분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승기를 넣으며 공세에 속도를 올렸다. 양팀의 공방전이 숨가쁘게 전개되던 후반 31분 주앙파울로의 공격 능력이 발휘됐다. 성남 진영에서 볼을 뺏은 주앙파울로가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을 쏘며 4-3으로 승부를 뒤집는 역전골을 완성시켰다. 이후에도 양팀은 실재없이 상대 진영을 오가며 혈전을 벌였다. 29개(유효 슈팅 19개)의 슈팅이 기록된 파워 싸움이었다. 광주 선수들은 앞선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페널티킥으로 2-3 역전패를 당했던 만큼 혼신을 다해 1점의 승부를 지키기 위해 그라운드를 뛰고 또 뛰었다.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10경기 무승에

서 벗어난 광주 선수들은 온갖 감정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주앙파울로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강원전에서 후반 중간 투입됐던 주앙파울로는 추가시간을 앞두고 교체되며 자존심을 구겼다. 주앙파울로는 "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하는 지도 알았는데 자신감도 떨어지고 감독님께서 주문하신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미안함이 담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온갖 세러모니를 하며 라커룸을 들쭉이게 한 선수들은 버스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기쁨의 괴성을 지르며 마음 속 응어리를 풀어나갔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4경기. 강원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주와의 경기를 남겨두면서 자동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가지만, 40라운드 결과(강원2-2대구) 일단 골득실로 강원을 밀어냈다. 영화처럼 극적인 역전승으로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한 'K리그 막내' 광주가 기적 같은 승리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K리그의 이목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루터에서 활약한 외야수 김주찬이 FA시장에서 50억 대박을 터트리며 KIA 유니폼을 입게 됐다.

김주찬 50억에 KIA로 호랑이 스피드 업그레이드

김주찬 "제2 야구인생 팬 성원에 보답"

KIA 타이거즈가 50억원에 외야수 김주찬을 영입했다. 롯데의 간판 외야수로 활약했던 '호타준족' 김주찬의 합류와 함께 KIA는 한층 짜임새 있는 타선으로 공격에 힘을 싣게 됐다. 하지만 과열 양상으로 전개된 'FA시장'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다. 김주찬이 물고 울 나비효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김주찬은 원소속구단과의 협상 시한인 16일까지 롯데와 결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올 시즌 최대로 FA 경쟁 시장에 나왔다. 44억을 제시했던 롯데는 49억까지 배팅을 했지만 김주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KIA와 한화가 일찌감치 김주찬의 영입을 공식화하며 가열됐던 영입 전쟁은 타구단 협상 시작 첫날 KIA의 승리로 끝났다. 한화 새 사령탑으로 팀을 꾸리게 된 김응용 감독이 직접 김주찬의 영입을 챙길 정도로 한화가 공을 들였지만 계약 기간 4년에 계약금 26억원, 연봉 5억원, 옵션 4억원 등 총 50억원에 KIA행이 확정됐다. 삼성 심정수(60억원)이후 역대 두 번째 금액이다. 지난해 LG에서 친정 넥센으로 돌아간 이택근도 50억원을 받았지만 보강금액이 44억원으로 김주찬(46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KIA의 통큰 배팅에는 '불확실성'이 기반이 됐다. 올 시즌 이범호-최희섭-김상현의 줄부상으로 붕괴된 KIA의 타선은 여전히 불안하다. 최희섭이 뒤늦게 마무리 캠프에 참가했지만 이범호는 아직 팀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시즌 이후에 대한 계산도 더해졌다. 2013시즌이 끝나면 부동의 톱타자 이용규가 FA 자격을 얻게 된다. KIA는 이용규의 이적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주찬의 영입경쟁에 공을 들였다. 내부 전력에 집중하겠다는 선동열 감독의 요청까지 더해지면서, 정대현(롯데)·조인성(SK)이 풀린 지난 시즌 FA 영입에 소극적이었던 KIA는 올 시즌 FA 시장의 큰손이 됐다. 과열논란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김주찬은 KIA에 필요한 전력이다. 2000년 삼성에 입단해 2001년 롯데로 트레이드된 김주찬은 올 시즌 118경기에 출장, 435타수 128안타 타율 0.294 5홈런 62득점 39타점을 기록했다. 도루는 32개. 통산 기록은 타율 0.279, 579득점 348타점 306도루다. LCK포 재가동이 불확실한 가운데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KIA타선에는 믿음직한 베테

람이 적실하다. 또 김주찬이라는 카드로 이종범 은퇴와 함께 기대했던 신종필의 부진 등으로 한계를 보인 외야의 운용 폭이 넓어지게 됐다. 올 시즌 KIA의 기동력을 책임졌던 테이볼 세터 이용규-김선빈에 김주찬의 발까지 더해지면서 '호랑이 군단'의 스피드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한화와 김주찬 영입전쟁을 벌였던 KIA는 이제 보강선수를 놓고 롯데와 눈치싸움을 벌여야 한다. FA 영입의 경우 원소속 구단에 보 상선수 혹은 해당선수 연봉의 300%를 지불해야 한다. 전력에 손실이 생긴 롯데는 보상선수를 선택할 전망이다. NC의 특별지명으로 조영훈을 내준 KIA는 또 다른 20인 보충선수 명단을 짜야 한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의 취야 포지션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한 '눈치싸움'이 KIA에 주어진 숙제다. 한편 김주찬은 "오랫동안 정들었던 롯데를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 KIA와 첫 만남에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팀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제2의 야구인생을 KIA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KIA 팬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천당과 지옥'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U-19 축구 대표팀이 17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라스 알 카이마의 에미리츠 경기장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로 우승을 확정지은 후 환호하고 있다(사진 위). 아래는 1대 4로 패하자 비통해 하는 이라크 선수들. /연합뉴스

U-19 축구 이라크 꺾고 8년만에 우승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 승부차기서 4-1 승리 한국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를 꺾고 2012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선수권 대회에서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U-19 축구 대표팀은 17일(현지시각) 아랍에

미리트 라스 알 카이마의 에미리츠 경기장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결승전 연장 접전 끝에 1-1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4-1로 이겼다. 전반 35분 무한나드 압둘라힘 카라르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에 문창진(포항)의 극적인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

다. 연장전까지 결승골을 내지 못한 양팀은 결국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이라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도를 놓치는 동안 한국이 4차례 시도를 연달아 모두 성공해 4-1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4년 말레이시아 대회 우승 이후 8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올라 12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성했다. 반면 2000년에 이어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 이라크는 준우승 트로피와 내년 터키에서 열리는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출전권에 만족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리틀 태극전사'들의 근성이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경기였다. /연합뉴스

'10년 타이거즈맨' 이현곤 NC 유니폼 '고향팀 떠나 섭섭...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타이거즈 선수로 타격왕까지 올랐던 내야수 이현곤(사진)이 신생팀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는다. 자유계약(FA)을 선언한 이현곤은 18일 NC와 3년간 총액 10억5000만원에 입단 계약을 끝냈다. 계약금 3억원, 연봉 1억5000만원(총 4억5000만원)에 옵션 1억원(총 3억원). 송정동초-무등중-광주일고-연세대를 거쳐 2002년 KIA 유니폼을 입은 이현곤은 2007년 0.338의 타율로 타격왕에 오른 등 팀의 주축 내야수로 활약했다. 올 시즌에는 중야



리 부상과 부진으로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6경기 만에 나와 0.200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NC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이현곤은 "신입생이 된 것처럼 긴장도 되고 설렌다. 고향팀을 떠나는 게 많이 섭섭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나에게 변화가 필요했다. 선수는 게임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쟁을 해야겠지만 경쟁을 통해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새팀에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고 그동안 응원을 보내준 KIA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특별지명으로 8명의 선수를 보강한 NC는 FA시장에서 이현곤과 함께 SK 거포 이호준을 3년간 총액 20억원에 영입하며 1군 데뷔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